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3가 85 / 전화 713-5254 (사무실) 717-2605 (담임목사실)
HOME PAGE: www.chungpa.or.kr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강림절 제2주 】

전 주	반주자
은총을 기리는 노래	주의 전에 나올 때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23. 만 입이 내게 있으면	다함께
----------------	-----------------------	-----

♠ 공동기도	다함께
--------------	-----

자비하신 하나님, 집을 떠났던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듯 우리는 마음의 정착을 찾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귀를 어지럽히는 설왕설래, 눈길을 사로잡는 화려한 볼거리들은 우리 영혼을 불투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스스로 문제라 여기면서도 그 마음을 닦을 엄두를 내지 못하는 우리들입니다. 이제 부끄러운 우리 삶의 실상을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닦아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비록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음성이 온 누리에 울려 퍼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세상의 소음 가운데서도 주님의 음성을 가려듣는 분별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말씀을 길로 삼아 마땅히 가야 할 길 견게 해주십시오. 말씀의 기초 위에 우리 인생의 집을 짓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

♠ 위로의 말씀	시121:5-6	인도자
----------------	----------------	-----

♠ 교 독 문	75. 성서주일	다함께
---------------	----------------	-----

♠ 영 광 송	6.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다함께
---------------	----------------------	-----

대표기도	I. 장성호 선생 II. 조병무 장로
------------	----------------------

응 답 송	찬양대
-------------	-----

찬 송	238. 주님의 귀한 말씀은	다함께
-----------	-----------------------	-----

성경봉독	I. 마4:12-17	인도자
------------	-------------------	-----

II. 시1:1-6	이순정 권사
------------------	--------

찬 양	찬양대
-----------	-----

말 씬	I. 빛의 탄생	김재흥 목사
-----------	----------------	--------

II. 말씀을 길로 삼아	김기석 목사
---------------------	--------

거둠기도	다함께
------------	-----

헌신의 찬송	519.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다함께
봉 헌		다함께
♠ 봉 헌 송	69. 나 가진 모든 것(1,2)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공동체 소식		인도자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한밤중 같이 어두운 세상이라 해도 말씀을 등불로 삼으면 비틀거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걸음걸이를 주님의 말씀에 굳게 세우십시오.

다 함 께 : 아멘. 비록 수많은 장애물들이 우리 앞길을 막아도 주님의 마음에 이르려는 우리의 발걸음을 지체케 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니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법도를 택하였으니,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선의 길로 인도해주십시오. 아멘.

♠ 결단의 찬양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다함께
♠ 축 복		담임목사

☼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2007년도 당회	성서로 배우는 평화/김기석 목사
인도 : 김기석 목사	기도 : 김 극 집사

다음 주 예 배 위 원	설 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흥 목사 김기석 목사	김서현 선생 한완식 장로	인도자 박석희 집사

12월	영접위원	조병무	김훈동	정원석	안정숙	유경순	김현영
	헌금위원	윤석철	홍순구	김중수	이순정	박혜경	백혜숙

사랑의 정원사

어느 날 화초를 매우 좋아하는 어떤 부인에게 한 젊은이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무려 12년 동안 꽃을 피우지 않는 나무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꽃을 피울 수 있을까요?”

부인은 느닷없는 질문을 받고 조금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곧 마음의 평정을 찾고는 상대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종의 나무입니까?”

젊은이는 부인의 질문에 우물쭈물하며 대꾸했습니다.

“전혀 모르겠는데요.”

곰곰이 생각하던 부인이 다시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그 나무를 좋아십니까?”

젊은이는 그 꽃나무를 아주 친한 친구가 선물로 준 것이기 때문에 버릴 수 없어서 억지로 키우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당신 부인은 그 꽃나무를 좋아합니까? 또 당신의 아이들은?”

부인의 질문에 젊은이는 냉랭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아니지요. 10년이 넘도록 꽃 한 번 피우지 않는 나무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제서야 부인은 그 꽃나무가 오랫동안 꽃을 피우지 않는 이유를 알겠다는 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당신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당신이라면 무럭무럭 자라서 꽃을 피울 수 있겠습니까?”

잠시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부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그를 조용히 타일렀습니다.

“지금부터 그 나무를 잘 살펴보세요. 그리고 그 나무를 좋아하게 될 만한 것을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그렇게 멋진 나무가 당신의 정원에 있어서 기쁘다고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 꽃이 필 것입니다.”

부인의 말에 젊은이는 당황한 듯 이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달쯤 지난 뒤 다시 젊은이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혹시 두어 달 전에 꽃 피우지 않는 나무에 대해 조언을 구하던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부인에게서 시키는 대로 했더니, 글썄, 그 나무에 거짓말처럼 꽃이 가득 피었지 뭐니까. 너무나 아름다워 눈이 부실 지경이랍니다.”

식물과 같은 존재도 사람처럼 저를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감정에 반응할 줄 아는 감각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식물학자들은 실제로 실험을 통해서 식물이 그것을 돌보는 사람의 관심에 구체적인 반응을 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식물이 좋아하는 파장을 알아내어 그런 파장의 음약을 들려준 결과, 같은 환경과 조건에서도 더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더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이제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 되었습니다.

식물을 돌보는 일이 이러할진대 사람을 돌보는 일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무엇을 베풀어줌이 아닙니다. 꽃을 키울 때도 우리가 무턱대고 물을 주거나 거름을 주지 않듯이, 우리가 상대를 사랑하는 일에는 깊은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상대를 이해하지 않는 사랑은 자기 소유욕의 발로이거나 자기 과시욕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에 대한 섬세한 관찰과 이해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랑은 상대의 영혼의 성숙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고유한 개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우리가 가까이 있는 이를 돕는다고 할 때, 우리는 그가 자기의 고유한 개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가 그 자신이 되도록, 그가 자기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제비꽃은 제비꽃을, 해바라기는 해바라기를 피워야 하듯이, 나와 함께 사는 상대가 그 자신의 꽃을 피우도록 배려하고 격려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관심이요 사랑입니다.

하지만 가까이 있는 이를 사랑하는 일은 얼마나 어렵던가요. 차라리 멀리 있는 이를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가져다 남의 배고픔을 달래주는 일이 사랑받지 못하는 이의 외로움과 아픔을 달래주는 일보다 쉽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잘 압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가족이든, 이웃이든, 회사의 동료이든, 또는 신앙의 길을 함께 걷는 공동체의 일원이든, 따뜻한 이해에 더한 구체적인 관심과 사랑일 때,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꽃나무에서 풍겨나는 그윽한 꽃향기를 함께 나누며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잃어버린 곳에서 찾아라

깜깜한 밤이었다. 사람들이 빈번하게 왕래하는 골목길 가로등 밑에서 어떤 사람이 뭔가 열심히 찾고 있었다. 주머니를 뒤져보기도 하고, 골똘히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다가, 불빛이 닿는 곳까지 땅바닥을 살살이 훑어보기도 했다.

그의 옆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대단히 중요한 것을 떨어뜨린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그러기를 또 얼마나 계속했을 때 한 사람이 발걸음을 멈추고 물었다.

“대체 무엇을 잃었길래 그렇게 정신없이 찾고 계십니까?”

“아-예, 집으로 돌아갈 시내버스의 토큰을 떨어뜨렸지 뭐니까?”

물어본 사람이 머쓱해졌다.

“어디서 떨어뜨렸는데요?”

“저쪽 길모퉁이에서요.”

“아니, 거기서 잃어버린 걸 여기서 찾으려면 어떻게 해요?”

“거긴 캄캄하고 여긴 환하잖아요. 밝은 데선 금방 찾을 것 같아서 말이죠.”

자주 생활이 꼬이거나 꼬인 일들이 풀어질 줄 모르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잃어버린 곳에서 찾아라! 어둠을 더듬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래야 하늘이 또 하나의 가로등을 켜서 인도하는 것이다.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장로 :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한선희 김수진 최미선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이순정	

◇ 한글 영수기 ◇

십일조헌금:

윤근민 박영준 최강민 정근수 수현순 배정
 더중민 진옥 배정 구정욱 이임권 유선
 성옥명 정고미 석실영숙 구윤수 철
 방김백이 전양장 무영모 인영재 혜
 성길현 선영성 수박최박이 김호
 경혜선 선복숙 해양규 유순정
 한김박 방소전 상일경구문세
 인양선 수규종 정이박이진김
 영인홍인정주 선복재 유숙우
 강김방 양박우 인정 정순
 시갈민 영숙단 김최안 정영김
 정숙정 영한재 수화숙 래구홍
 구김영 임영최 명훈미 주상의
 자동경 민환영

월정헌금:

김창영 김정은 김맹원 윤정민 손석정 경미희 이류 수순근 형영혜 영순한 김민정 정금두 섭석리 김박소 문희덕 지이희 명기향 주분범 김박우 종찬현 철정정 고송김 영의담 애설종 김원오 현성복 영중순

감사헌금:

김준우 우순덕 박옥식 김춘려 김준호 곽해자 임창선 박지민 이인섭
 임주빈 최현옥 이정현 김민아 문홍일 이미혜 박병구 오광자 무명4

생일감사헌금: 이서현 오복순 **추수감사헌금:** 김춘려

100주년 기념헌금: 양재성 한상의 정영선 이선림 김용진 가정

캄보디아 우물헌금: 김남종 오복순 양미숙
 (100주년 헌금 누계 : 128,760,000원)

◇ 속회보고 ◇

속명	인도자	속장	모인곳	다음장소
예루살렘	장혜숙	장혜숙	김애경	연합속회
베들레헴	노순옥	정경례	김영한	
안디옥	임정자	이춘희	이재문	
가나안	문영혜	박경선	김진경	
갈릴리	안정숙	박애순	최희영	
베다니	박홍재	곽권희	이은옥	
시온	박효선	허정윤	김희우	
엠마오	최숙화	권미정	김재광	
에베소	이순정	김금순	이순정	
빌립보	이형숙	권미숙	구성실	
가버나움	안홍숙	오현정	임수연	
나사렛	백혜숙	정옥영	백혜숙	
갈라디아	송양진	유경순	박옥식	
고린도	이영란	이증자	이봉배	
다메섹	박혜경	최영혜	박혜경	

